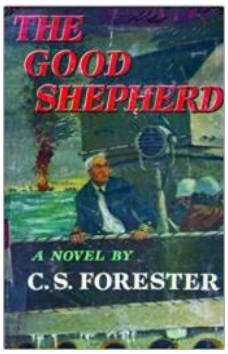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GOOD SHEPHERD
가제 : 선한 목자
저자 : CS Forester
출판사: Michael Joseph
발행일: 2019년(개정판) / 1955년 12월 19일(초판)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전쟁소설

*** 톰 행크스 각본, 주연 영화로 제작 – 2019년 4월 미국 개봉 예정(영화 제목: Greyhound)**
***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그리스, 중국 판권 계약 체결**
*** "포레스터의 작품은 전부 추천한다." – 어니스트 헤밍웨이**
***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후 이만큼 흥미로운 작품은 없었다." – 「가디언」**

2차 대전이 시작된 후 연합군이 쥐고 있던 대서양 제해권이 독일로 넘어가자 영국은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위기 상황을 맞이한다. 전쟁 물자를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상황에서 바닷길이 먹혀버린 것이다. 미국이 참전한지 얼마되지 않은 1942년, 대서양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처칠 수상은 '대서양 전투'를 선언하고, 미국의 해군 호송부대가 투입된다.

1955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 탄탄한 스토리로 큰 호평을 받은 이 소설은 대서양 전투를 배경으로 미 해군 호송부대를 진두지휘한 조지 크라우스 해군의 활약을 그린다. 해군 장교로 오래 복무했지만 실전은 처음인 크라우스는, 경력이 자신보다 훨씬 부족한 병사들을 이끌고 작전에 투입된다. 2차 대전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이 작전을 그린 소설은 톰 행크스가 각본, 제작에 참여하고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로 제작 중이다. 미국 개봉 예정일은 내년 4월이다.

마흔 두 살의 조지 크라우스가 이끄는 호송부대에 주어진 임무는 그 중요성이 막중했다.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대서양을 장악한 독일 해군의 U보트는 정면으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군의 눈에 띄지 않고 추월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물자를 대서양 건너 영국까지 운반하는 것이 크라우스에게 맡겨진 임무였다. 800명 넘게 승선한 네 대의 구축함이 있었고, 2,000명 가까운 병사들과 선원들이 올라탄 호송선이 있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무려 3,000명의 목숨과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물자가 그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게다가 그 호송부대와 함께 항해하는 한 선박의 가치가 어마어마했다. 선박 자체의 가치만 25만 달러, 그 안에 100만 달러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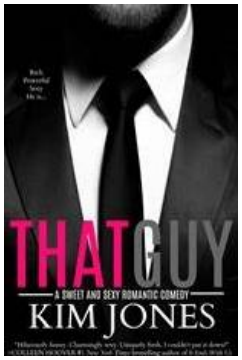
의 석유를 싣고 있는 유조선 '헨드릭슨 호'였다. 이 유조선이 영국 땅에 무사히 도착할 경우 영국 해군 전체가 한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었다.

호송부대 전체 지휘관이자 '킬링(Keeling)'호 선장으로 임명된 크라우스는 주어진 임무에 헌신하고, 규율은 한 치의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원칙주의자였으며, 주변에는 믿을만한 친구들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적도 없었다. 완벽하다 할 만큼 잘 살아온 그에게 이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것은 가족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충격이 질기게 따라다니고 오랜 헌신에도 보상은 거의 없는 해군 생활에 지쳐있을 무렵이었다. 그에게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첫 번째 임무이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기회이기도 했다.

모두의 예상대로 작전은 단 1초도 안심할 수 없을 만큼 아슬아슬하게 전개된다. 수적으로나 전투력 면에서나 모두 우월한 독일 잠수함에 잡히지 않기 위해 크라우스의 호송 부대는 3일 밤낮을 꼬박 새워 끊임없이 쫓고 쫓기는 싸움을 벌인다. 극도의 피로와 허기, 갈증을 참아가며 눈 앞에 불쑥 나타난 적군을 피해 달아나고 겨우 한숨 돌릴 만하면 다시 나타난 적군을 피해 또 다시 달아나는 일이 끝도 없이 반복된다. 규모나 크기 면에서 비교도 안 되는 미군 호송함이 거대한 상어나 다름없는 독일 해군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주변을 선회하고, 쉴 새 없이 망을 보았다. 그러다 결국 발각되어 전투를 벌이게 되곤 했으며, 무사히 달아날 때도 있지만 붙들리는 피말리는 상황도 있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크라우스와 병사들이 책임감과 명예심, 의무감을 잃지 않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특히 엄청난 작전을 지휘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한껏 의기양양하다가 경험 부족과 한계를 깨닫고 자기 회의에 빠지고,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가족 문제에 고통받으면서 수천 명의 목숨, 수백만 달러의 가치, 그보다 훨씬 무거운 전쟁이라는 무게를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크라우스라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하다.

<저자 소개>

C.S. 포레스터(C.S. Forester, 1899-1966)는 탐험과 전쟁에 관한 소설로 큰 명성을 얻은 작가로 대표작으로는 『The African Queen』과 열한 권으로 구성된 나폴레옹 시대 해군 전투 시리즈 『Horatio Hornblower』가 있다. 『A Ship of the Line』과 『Flying Colours』로 1938년 제임스 테이트 블랙 기념상(James Tait Black Memorial Prize)을 수상했다.



제목 : THAT GUY
가제 : 그런 남자
저자 : Kim Jones
출판사: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발행일: 2018년 7월 3일
분량 : 248 페이지
장르 : 로맨스소설

* "배꼽 잡는 재미, 매력적인 섹시함, 독특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책. 내려 놓을 수가 없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콜린 후버
* "올해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다면, 이 책을 읽어라. 너무 재미 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오로라 로스 레이놀즈(Aurora Rose Reynolds)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여자가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잘생긴 재벌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는 그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소설이며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지겹다, 뻔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런 스토리가 늘 흥미를 끄는 이유는 뭘까? 미시시피의 코딱지 만한 마을에서 작가로 꿈을 키워온 페넬로페는 바로 그런 로맨스 소설을 써보자고 마음 먹는다. CEO 자리에 떡 하니 오른 남자, 재산은 너무 많아서 짐작도 안 되고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몸매는 엄청나게 섹시하고 만나는 여자마다 다 홀리는 사람, 그리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 때문에 은근히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여자들에게 더 호감을 사는 남자, '그런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써서 큰 성공을 거두리라 결심한 페넬로페에게 생생한 '취재'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갑작스레 찾아온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그런 남자의 실생활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코 앞에 온 이상, 페넬로페는 그냥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소설 속 여주인공이 되기 위한 야망을 불태운다. 페넬로페의 엉뚱하고 발랄한 '그런 남자 마음 빼앗기' 작전을 그린 이 소설은 숨 고를 틈도 없이 폭소와 진한 로맨스로 독자들을 그 정신없는 모험 속으로 끌어당긴다.

절친한 친구, 에밀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남자에게 복수하고 에밀리 얼굴에 환한 웃음을 되찾아주겠다는 것이 페넬로페의 첫 목표였다. 에밀리의 전 남자친구 루크는 다른 여자와 희희낙락 양다리를 걸친 채로 오랜 시간 거짓말만 일삼다가 결국 들통이 났고, 그간의 행적이 드러나자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6개월이 넘도록 마음을 못 잡는 친구 곁에서 거의 매일 밤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펑펑 우는 친구를 위로하던 페넬로페는 2주 전, 루크에게 아주 이상한 공포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번쩍 전구가 켜지는 기분을 느꼈다. 개똥만 보면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겁을 낸다는, 난생 처음 듣는 공포증이 있다는데 어떻게 지나칠 수 있으랴! 책이 몇 권 출간되기는 했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아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페넬로페는 신용카드 한도액을 다 써가면서까지 루크가 있는 시카고 행 비행기표를 끊는다. 개똥을 봉지 가득 모아서 아침 일찍 루크네 집 앞에다 갖다 놓고, 똥을 발견하고 기

겁하는 루크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영상으로 녹화한 다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페넬로페의 복수 계획이었다. 그 영상을 보면 에밀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박장대소하면서 눈물 흘리며 웃겠지! 복수의 목표는 그것 하나였다. 그러나 별로 어려울 것 없어 보였던 계획은 초반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시카고의 겨울 날씨는 미시시피와는 차원이 달랐다. 사계절 내내 얇은 점퍼 하나로 버틸 수 있는 고향과 달리 시카고에는 시베리아 벌판인가 싶을 만큼 찬 바람이 불어 닥쳤다. 그런 시카고의 낯선 공원에서 오들오들 떨며 누가 개를 산책 시키기만을 기다리던 페넬로페는, 한참이 지나서야 덩치 큰 개의 배변을 겨우 봉지에 담는다. 문제는 남의 애완견 배설물에 집착하는 여자를 미쳤다고 생각한 개 주인이 똥을 주워 가는 페넬로페를 뒤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치워줘서 고맙다고 할 것이지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달아나기 시작한 페넬로페는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는 우락부락한 개 주인을 피해, 도로변에 시동을 건 채로 서 있던 큰 리무진 뒷좌석에 얼른 올라타버린다. 잠깐 눈만 피하고 내리려고 했는데, 타자마자 저 멀리 떨어진 운전석에서 '인터폰'으로 말을 걸어왔다. "심스 양이시면,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에 "네"라고 답한 것이 페넬로페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일단 밖이 너무 추웠고, 되도록 개 주인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가고 싶어서 잠깐 거짓말을 하고 만 것이다. 리무진이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건물 앞, 얼떨결에 그곳 맨 위층 펜트하우스까지 안내 받은 페넬로페는 엄청난 기회가 눈 앞에 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챈다. 누군지는 몰라도, 운전사와 건물 관리인이 제이크 스웨거라 부르는 이 집 주인은 페넬로페가 오래 전부터 꼭 쓰려고 했던, 로맨스 소설의 주인공과 아주 흡사한 인물 같았다. 그런 남자의 집안에 들어오다니, 감격한 페넬로페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휴대전화로 운동장 같은 집 구석구석을 촬영하기 시작한다. 대체 이런 집에 사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제대로 취재만 한다면 정말 생생한 소설이 나오겠는걸? 작가 특유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것이 페넬로페의 두 번째 크나큰 실수, 아니 기회였다.

아예 제집처럼 죽치고 앉아 구경하던 페넬로페는 예정보다 일찍 들이닥친 집주인 제이크와 정면으로 맞닥뜨린다. 개똥을 비닐봉지에 들고 자기 집 거실에서 수천만 원짜리 소파에 빵 가루를 질질 흘리면서 피자를 먹고 있는 낯선 여자를 발견한 그는 단번에 뚜껑이 열리고,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친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쫓겨나면서도 제이크의 생활을 좀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을 버리지 못한 페넬로페는, 처음 계획대로 루크의 집 앞에 개똥을 갖다 놓다 주민 신고로 경찰서 신세까지 지게 되자 또 사고를 친다. 제이크 사무실 전화번호를 자신의 '친구' 연락처라며 경찰에 알려준 것이다! 엉뚱한 짓만 고라서 하는 페넬로페의 이 열렬한 취재 욕심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제이크가 찾던 심스 양은 누구일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여주인공이 만들어내는 기막힌 상황들과 불꽃 튀는 사랑이 이어지는 매력적인 로맨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킴 존스(Kim Jones)는 『Sinner's Creed』, 『Saving Dallas』 시리즈 등 로맨스 소설을 중심으로 써온 작가다.

제목 : YOUR TRUTH OR MINE
가제 : 남편과의 진실게임
저자 : Trisha Sakhlecha
출판사: Pan Macmillan
발행일: 2019년 6월
분량 : -
장르 : 심리스릴러소설

*** 신혼부부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서스펜스! 과연 나는 이 사람을 안다고 말 할 수 있을까?**
*** 에린 켈리(Erin Kelly)의 『He Said She Said』, 리사 주웰의 『Then She Was Gone』에 비견되는 데뷔작 – 완벽한 결혼생활의 표면 아래 숨겨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

갓 부부가 된 모든 커플이 그렇듯, 서로 평생 사랑하고 아껴주자고 진심으로 다짐했던 미아와 로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대다수가 겪는 소소한 골칫거리와 굵직한 문제들 속에서도 오래도록 탄탄하게 이어졌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배신과 부정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야만, 어느 한 쪽이 상대를 미워하거나 싫증나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로이와 미아의 평범했던 일상에는 어느 겨울의 주말,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면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 3일째 실종된 젊은 여학생, 에밀리 바넷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경찰은 그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로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과 여행책을 펴낸 작가로 일하다 우연히 알게 됐다는 로이의 설명은 과연 어디까지 진실일까?

작가는 시간에 파묻힌 끔찍한 과거의 악몽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아픔을 덜기 위해 다른 이에게 또 다시 상처를 입히는 비극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영국과 인도를 배경으로 그려낸다. 미아와 로이의 관점에서 번갈아 이어지는 짤막한 이야기들은 에밀리와 부부가 처음 만난 3개월 전, 그리고 먼 옛날 철없던 시절에 벌어진 사고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억눌린 욕망과 트라우마의 끈질긴 영향을 뒤엉킨 관계들을 통해 보여준다.

미아의 여동생, 아디의 결혼식이 열린 9월이 에밀리가 처음 부부의 인생에 등장한 시점이었다. 지인이 인도 여행에 관한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하고, 여행 작가인 로이가 진행자로 출연하기로 했는데, 메이크업부터 장소 섭외 등 자잘한 일을 돕는 조수로 에밀리가 참여한 것이다. 2주간 진행된 촬영 일정 때문에 로이는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처제 결혼식 전날이 되어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미아는 미아대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결혼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전담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셋이서 함께 버텨온 자매는 누구보다 우애가 끈끈했다. 정작 미아 자신은 소박하다 못해 허전한 결혼식을 대충 치러야 했지만 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멋진 날이 될 수 있도록 쉴 틈 없이 백방으로 애썼다. 마침내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로이는 2주 내내 함께 애쓴 에밀리에게도 결혼식에 오라고 초청한다. 그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감정은 없었다.

아디의 결혼식은 미아가 땀 흘려 노력한 보람이 철철 넘칠 만큼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일가친척들이 모두 몰려들어 미아가 인사하러 다니느라 바쁜 사이 로이는 에밀리를 데려다 주러 잠시 밖으로 함께 나갔다. 택시를 기다리는 사이, 에밀리는 대뜸 로이에게 정말 멋있는 분 같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낮부터 기울인 술 때문인지, 아니면 미아와 결혼한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관계가 한없이 틀어져버린 부모님이 기어이 아디의 결혼식장에 찾아와 빈정거린 일로 이미 정신이 반쯤 혼란스러워서 그랬는지, 로이는 에밀리의 직선적인 고백에 크게 동요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됐다.

전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로이의 부모님은 어머니만 인도인이고 아버지는 서양인인 미아와의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반 쪽짜리 행사로 대충 마무리된 것도, 부모님이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아는 그 일로 부모님과 연을 끊다시피 한 로이 대신 어떻게든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몇 년째 애를 썼지만 미아를 보는 차가운 눈빛이나 미아의 집안을 우습게 여기는 시부모님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아디의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로이는 자기 부모님을 초대하지 말라며 화를 냈지만 그럴 수 없다고 겨우 설득한 것도 미아였다. 부모님과의 문제, 특히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아는 오래 전부터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속 시원히 알 수도 없었다. 그 일이 오래도록 로이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 내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아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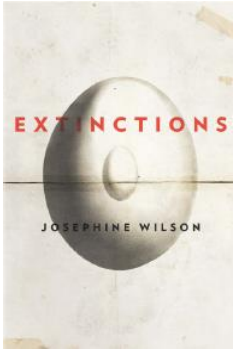
에밀리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로이가 그녀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뿐만 아니라 에밀리는 로이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으며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로이와 아이를 지우는 문제로 큰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에밀리가 사라지기 전날 밤, 로이가 직접 런던 시내의 한 호텔에 방을 예약했고 자정 직전에 룸서비스를 주문했으며 음식이 도착하자 직접 객실 밖으로 나가서 가지고 들어갔다는, 의심쩍은 일들도 하나 둘 알려진다. 결국 로이는 에밀리 실종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고, 미아는 큰 충격에 빠진다. 미아에게 결혼은, 그리고 부부의 신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관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미아의 어린 시절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엄마와 두 자매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아예 집에 오지도 않았다. 엄마가 우는 것을 보면서, 미아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동생 아디까지 가담시켜 아빠와 함께 사는 여자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그 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나 아디가 크게 다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빠가 집에 오게 만들려고 한 것도 다 미아의 아이디어였다. 자식을 둘 이나 낳은 사람이 사랑 운운하며 아내를 배신하는 것, 미아에게는 그것만큼 큰 상처는 없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었던 로이마저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지고, 로이와 미아의 진실 찾기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진다. 흡입력 강한 심리 서스펜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트리샤 사클레차(Trisha Sakhlecha)는 뉴델리에서 자랐다. 디자이터, 트랜드 예측 전문가로 활동하다 파버 아카데미 글쓰기 코스를 마치고 현재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제목 : EXTINCTIONS
가제 : 멸종 같은 노년
저자 : Josephine Wilson
출판사: UWA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12월 20일
분량 : 300 페이지
장르 : 영미문학일반



*** 2017년 호주 마일스 프랭클린 문학상(Miles Franklin Literary Award) 수상작**
*** UWA Publishing에서 미출간 원고에 수여하는 '도로시 휴잇 상' 수상작**
*** "사랑과 상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을 원숙하게 그린 작품" - 『Pettigrew's Last Stand』의 저자 헬렌 시몬슨**

건축 공학과 교수로, 콘크리트 전문가로 명망 있는 학술지에 논문도 여러 편 게재한 프레데릭은 평생 가장 싫어한 두 단어, '은퇴'와 '마을'이 결합된 곳에 스스로 갇힌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니 마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드는, 은퇴자들이 대부분인 곳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곳은 딸아이 캐롤라인의 강력한 권유로 택한 장소였다. 프레드릭은 학계에서는 실력 있는 전문가였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그와 달리 어떤 모임에서도 사랑받는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던 아내 마사가 세상을 떠난 데다가 교수직에서도 물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집단 수용소처럼 느껴지는 이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떠올리며 지금 자신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사라져간, 한 때는 번성했지만 흔적도 없이 지워진 멸종된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 프레데릭의 두서없는 넋두리처럼 흘러가는 이야기는 그가 문득문득 떠올리는 상념과 추억, 아쉬움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는 생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열정, 날카로운 유머가 담겨 있다.

구조 엔지니어로 평생을 살아온 프레데릭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다리 하나 뚝딱 만들어내는 일만큼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을지언정 그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다리를 놓는 실력은 형편없이 부족했다. 특히 어린 시절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 못지않게 마사와 꾸린 프레데릭 자신의 가정도 불운했고, 우울한 일이 너무 많았다. 마사와 결혼한 직후부터 두 사람은 얼른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몇 차례 유산이 반복되고 마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갈 무렵, 다니던 병원에서는 두 사람에게 입양을 권했다. 영국에서 나고 자란 프레데릭은 당시 이미 호주에 정착한지 오래였고, 남편 하나만 믿고 고향인 미국을 떠나 호주로 함께 건너온 마사 역시 새로운 나라에 충분히 적응한 상황이었다. 호주 정부에서 원주민들과 일반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혼혈아'로 부르며 무작정 빼앗아버리는 잔인한 정책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지만, 프레데릭과 마사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70년대에는 가난 때문에 버려지는 혼혈아들이 많았다. 입양을 결심한 부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러 아이들을 만나보고 태어난 지 3년도 채 안 된 어린 혼혈아를 데려오기로 했다. 캐롤라인은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

어릴 때만 해도 활달하고 아빠를 잘 따르던 캐롤라인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호주 원주민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정책과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의 얼굴조차 알 수가 없다는 사실에 깊이 분노한 캐롤라인은 외력에 의해 이 땅에서 사라져간 친모 같은 사람들과 존재들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다. 하와이로 건너가 인류학을 공부하고 문화 인류학자가 되어 멸종 동물을 전시하는 일에 매진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가뜩이나 소통에 서투른 프레데릭은 사사건건 캐롤라인과 부딪혔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고, 2년 전 마사마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관계가 더욱 소원해졌다. 외딴 마을에 홀로 남은 그는 처음 캐롤라인을 집에 데려왔을 때, 그가 논문을 쓰고 강의하느라 여념이 없을 때 시집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조르던 딸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중한 줄 모르고 놓쳐버린 순간들을 그리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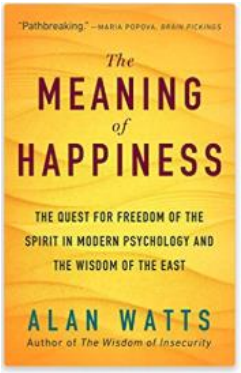
캐롤라인을 입양하고 몇 년 뒤, 기적처럼 찾아온 둘째 아이 캘럼도 프레데릭의 삶에서 너무 멀어졌다. 캘럼은 프레데릭이 몰던 차를 물려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극심한 뇌 손상을 입고 말았다.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24시간 누군가 옆에서 챙기고 돌봐줘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 된 것이다. 아들이 전문 치료시설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프레데릭이 더욱 견딜 수 없는 이유는 그 사고가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은 마음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우는 그의 심정을 모르는 캐롤라인은 아버지가 냉혈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오해했다. 마음과 달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 받고, 비난받는 것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프레데릭은 홀로 남겨진 지금,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멸종의 수순을 밟게 된 이유는 잘못된 선택만 거듭해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프레데릭이 떠올리는 과거의 사건들과 기억을 통해 우리는 그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숨죽여 사는 엄마를 보고 자랐고, 네 살 터울이던 남동생 버질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느낀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감정 표현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서투른 이유도 그런 가슴 아픈 시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아쉬운 기억에 매달리며 살던 어느 날, 프레데릭은 우연한 기회에 옆 집에 사는 잰이라는 여성과 가까워지고, 서로 지나온 삶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미 생겨버린 상처와 아픔도, 그것이 스스로 저지른 거짓말과 꽁꽁 감춘 비밀 때문에 생긴 것일지라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는다. 더불어 당당한 척 하지만 불안에 떠는 딸과 마음과 달리 방치해버린 아들, 주저 앉은 가족이라는 건축물을 재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프레데릭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저자 소개>

조세핀 윌슨(Josephine Wilson)은 서호주 대학교에서 비교문학,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창작예술을 공부했다. 『The Geography of Haunted Places』에 공저자로 참여했으며 소설 『Cusp』(2005)으로 데뷔했다. 현재 호주 퍼스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리뷰어로 활동하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THE MEANING OF HAPPINESS
가제 :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자 : Alan Watts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8년 8월 25일(개정판, 초판 1940)
분량 : 280 페이지
장르 : 철학/자기계발

*** "삶과 배움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에서 나온 책. 현명하고 실용적이다." - 「뉴욕 헤럴드 트리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해답으로 제시되어온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변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행복을 '획득'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소개한다. 영적인 방법, 심리학적인 기술과 더불어 물질적인 방법도 포함된다. 2차 대전이 발발한 시기였던 1940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 어쩌면 책을 읽기에 가장 부적절한 타이밍이라 여겨질 수 있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독자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은 이 책에서, 저자는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뭔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해답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행복은 정반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과감하고 기존 인식을 뛰어 넘는 주장에 담긴 핵심은 모순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삶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 철학과 서양의 신비주의, 분석심리학에서 제기된 이론을 토대로, 저자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 세계와 개개인의 내면에 형성된 내적 세계, 즉 무의식적인 마음, 자아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분명 존재하는 자신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욕구까지도 오롯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과 이를 통해서만 비로소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서구 사회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은 50여 년 전부터 두 갈래로 양분됐다. 서양에서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이 중심이 되어 등장한 과학적인 심리학과 고대 인도, 중국에서 긴 세월 전해 내려온 지혜가 중심이 된 동양 철학이 각각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였다. 개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반면 산스크리트어나 고대 인도어인 팔리어, 중국어, 일본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심리학보다는 한 발 늦게 서구 사회에 알려진 동양철학은 처음 소개됐을 때만 해도 로마 법이나 이집트 상형문자처럼 특수한 학문 중 하나가 되리라 예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효용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동양 철학은 읽고 생각해볼 만한 가치를 넘어, 일상생활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먼 옛날 고대 동양의 어느 나라에서 적용되던 이야기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현

대 서구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내밀한 고민을 해소하고 위로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행복을 찾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저자는 심리학과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정신과 마음, 내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하여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들여다본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부질없는 시도를 그만 두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과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성공하고 행복을 쟁취하는 공식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존재 할 수도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것은 '정신의 자유'이며 이는 자기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간결하게 설명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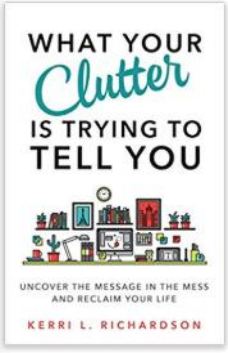
<목차>

제 2판(1952년) 서문
일반인,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한 서문
머리말
1. 영혼의 전쟁
2. 종교가 제시하는 답
3. 받아들이는 법
4. 신의 귀환
5. 악순환
6. 다수 속에 하나
7. 위대한 해방
8. 삶의 사랑

<저자 소개>

앨런 왓츠(Alan Watts, 1915-1973)는 영국에서 태어나 20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주로 동양철학을 서구인들에게 소개하는 목사, 교사, 저술가로 활동했다. 베스트셀러 『Way of Zen』을 비롯해 스무 권이 넘는 책을 썼다.

제목 : WHAT YOUR CLUTTER IS TRYING TO TELL YOU
가제 : 잡동사니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저자 : Kerri Richardson
출판사: Hay House, Inc.
발행일: 2017년 8월 15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전자책 논픽션 전체 베스트셀러 3위, 실물 책 기준 베스트셀러 250위 진입**
*** "'치워야 행복해진다'는 일반적인 이야기 대신, 왜 우리가 어질러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지 설명하고 잡동사니가 좀 더 많은 공간과 번영, 평화를 확보해서 성장하는 발판이 되게끔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 셰릴 리처드슨**

놔둬봐야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언젠가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소중한 사람이 날 생각해서 선물로 준 거니까' 등등 갖가지 이유로 쌓아둔 물건들이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미국의 경우 물건 보관할 창고를 따로 빌리는 경우가 열 가구 당 한 곳인데 그 중에 집에 차고가 딸린 경우도 65 퍼센트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한 가정이 소유한 물건의 개수만 30만 개에 이른다고 하니, 물건이 보관된 집에 사람이 겨우 끼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방과 베란다, 창고, 다락방은 물론 비는 공간마다 물건이 꽉 들어찬 상태로 살면서도 왜 우리는 새 물건을 계속 사들일까? 성공의 지표가 더 넓은 집, 더 큰 차라는 인식이 자리한 탓도 있지만, 그런 환경에 살면서 그다지 행복하지 않거나 심지어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쌓인 잡동사니는 그저 물리적인 공간만 빼앗는 것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에게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생활 공간도 좀 더 홀가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프스타일 코치로 수천 명의 사람들과 만나온 저자는 쌓이기만 하는 잡동사니를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더 집중해서 돌봐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날개를 펴지 못하도록 붙드는 두려움과 걱정, 불안의 원천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그래서 매일 보면서 스트레스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눠봐야 할 대상으로 잡동사니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잡동사니를 '메신저'로 칭하고, 불필요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들이 우리에게 늘 꿈꾸고 바라던 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아주 불편하고 명확한 진실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관심을 기울여 보라고 이야기한다. 무작정 치우는 대신 주변 환경을 간소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음으로써 물리적인 공간은 물론 정신적, 영적인 공간까지도 말끔하게 비울 수 있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소개된다. 일시적인 대청소보다는 해묵은 습관, 해로운 관계를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인생 대정리'를 실시하여 더 좋은 것들로 새롭게 채

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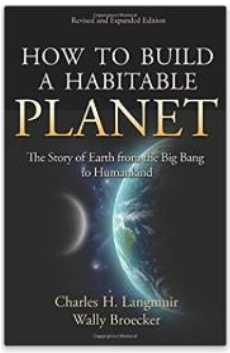
잡동사니는 새롭고 더 유익한 것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벗어나지 못하는 기억들,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은 우리의 앞날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저자는 아내와 함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큰 아파트를 구입해서 모든 공간을 물건으로 채우고 장식으로 도배를 한 채로 살다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동식 트레일러 주택으로 생활 공간을 바꾸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로 막는 잡동사니의 놀라운 악영향을 생생하게 설명한다. 개개인이 바라는 삶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잡동사니로 정의하고, 꼭 필요한 것만 소중하게 지킴으로써 큰 자유와 에너지, 힘을 얻는 길로 안내한다.

<목차>

머리말
1장. 잡동사니: 괴물일까 메신저일까
2장. 반발심에 숨겨진 비밀
3장. 잡동사니가 말을 할 수 있다면
4장. 잡동사니가 쌓이는 일반적인 원인
5장. 잡동사니가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아주 편리한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6장. 현실적으로 해결하자
7장. 잡동사니를 돈으로 만들어보자!
8장. 새로 생긴 공간이 선사하는 기쁨

<저자 소개>

케리 리처드슨(Kerri Richardson)은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이자 자기계발 코치로 15년간 일해 왔다.



제목: HOW TO BUILD A HABITABLE PLANET
가제: 빅뱅부터 인류 문명이 자리잡기까지 지구의 역사
저자: Charles Langmuir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2년 7월 22일
분량: 736 페이지
장르: 과학

*** 중국, 일본 판권 계약**
*** 2012년 미국 출판사협회 선정 지구과학 분야 최우수 전문/학술 도서**
*** "NASA가 지구의 이웃 행성인 화성의 서식 가능성을 계속해서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 지구의 서식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적시에 상기시키는 통찰력 있는 책. 최신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로저 에버렛 서몬스(Roger Everett Summons)**

"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인간은 맨 처음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일이 없을 때, 창 밖을 가만히 내려다보거나 빌딩숲을 조금 벗어나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볼 기회가 생겼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을 미래에도 영원히 인간이 똑같이 밟고 서 있을까? 크게 체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여러 가지 특성이 과거와 크게 다르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 인류의 유일한 서식지, 지구의 기원과 발전은 무수한 관심이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연구가 진행된 주제다. 수백 년 전부터는 '자연 과학'이라는 명칭이 부여되고 물리학, 화학, 생물학은 물론 천문학, 지구과학 등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된 통합적인 과학에서도 이 인류보편적인 의문을 일에 뛰어들었다.

지구의 기원과 진화를 과학적으로 흠 잡을 곳 없는 내용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은 W. S 브로커(W. S Broecker)의 저서에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을 보강하여 새롭게 펴낸 이 개정판에서 지구화학자인 저자는 세계 일류 지구과학자로 인정 받는 원저자와의 긴밀히 협력하여 빅뱅부터 인류 문명이 자리잡기까지 지나온 지구의 역사를 다시 세밀하게 설명한다. 별의 화학적인 구성물질이 처음 합성된 순간부터 태양계의 형성, 지구에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기후가 만들어지고 맨 처음 생명체가 나타난 순간, 그리고 인류가 등장하여 진화한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는 한편, 은하계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또 존재할 수 있는지,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구의 서식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빅뱅이 일어나고, 별이 형성되고, 태양계가 구성되고, 생명이 등장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과정은 곧 인간 존재의 시작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과정을 최근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 책의 일차적인 목표라면 모든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것, 즉 인간의 기원과 더 큰 세상, 우주와의 관계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 부차적인 목표라고 설명한다.

지구의 역사를 탐구하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란 무엇인지 고민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그와 비슷한 역사를 지난 곳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하고, 우주의 형성에 관한 과학적인 절차가 인류를 비롯한 생물체의 등장과 이후 놀라운 변화 혹은 진화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짚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인지하는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특별한 과학서다. 지구를 특정 분야의 관점이 아닌 넓은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생명, 인간과의 유대관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서문
1장. 머리말: 지구와 자연계의 생명
2장. 바탕: 빅뱅과 은하계의 형성
3장. 원재료: 별의 구성요소가 만들어지다
4장. 예비 단계: 유기분자와 무기분자의 형성
5장. 대규모 형성 단계: 태양 성운에서 시작된 행성과 달의 형성
6장. 일정: 방사성 핵종으로 시점 파악하는 법
7장. 내적 변화: 핵, 맨틀, 표면, 해양, 대기의 분리
8장. 이웃과의 다툼: 달, 소행성, 혜성, 충돌
9장. 살기 편한 곳으로 만들기: 유수, 온도 조절, 태양빛 가리기
10장. 순환 체계의 구축: 판 구조론
11장. 내부 순환: 맨틀 대류와 지표면과의 관계
(이하 생략, 총 21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찰스 랭뮤어(Charles Langmuir)는 하버드 대학교 지구화학 교수이자 콜롬비아 대학교 지구환경과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Fixing Climate』, 『The Great Ocean Conveyor』 등이 있다.

제목 : DESIGN YOU FUTURE
가제 : 사는 게 재미없을 때 보는 책
저자 : Dominick Quartuccio
출판사: TCK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12월 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분명 바라던 대로 살고 있는데, 지루하고 답답하다면? 스스로 만든 한계를 부수고 능동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방법**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일도 꽤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아주 신나진 않아도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게 된다. 그런데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번듯한 직장에 적지 않은 돈을 벌면서 사는 단계에 이르면 아무 고민도 없을 것 같았지만, 막상 그 지점에 이르면 예기치 못한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른다. 딱히 큰 불만은 없지만 어떤 일에도 큰 의미나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생활, 하루하루 즐겁게 살기보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고, 주어진 의무와 책임 때문에 꾸역꾸역 일을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생활이 끝도 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덫에 인생이 갇혀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훨씬 더 곤란한 상황에 놓여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불러서 하는 고민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눈 꼭 감고 지내봐도 이 묵직한 답답함은 영 해소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2009년까지만 해도 금융 업계에서 눈부신 영업 실적을 만들어내며 돈도 많이 벌고 주변의 부러운 시선이 온통 쏠리던 존재였지만 다 내려놓고 나와버린 경험이 있는 저자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은 우리가 직접 만든 '불 보듯 뻔한 미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잘한 사건까지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수순대로 흘러가고 이변이 없는 한 큰 변화가 없는 생활이야말로 좀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갉아먹는 덫이며,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적은 불안감과 초조함이 아니라 만사에 덤덤하고 아무 재미도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껴지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 하나는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자신에게 주어지는 각종 의무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수행하며 보람을 찾으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성취한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두 가지 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방식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허무함과 불만족을 또 다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더 큰 결과를 바란다면, 제어할 수

없는 욕심과 높아진 기준을 채우느라 허겁지겁 아주 오랜 세월을 매달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저자는 이 모든 문제가 스스로 짊어진 지붕의 무게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이 지붕을 깨뜨리고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다시 일깨우는 것, 쳇바퀴 돌듯 고정된 생활 패턴과 행동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사실에 설렐 만큼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는 것, 크게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방법을 각 장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삶이 끌고 가는 대로 맥없이 끌려 다니는 대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꼭 집중해야 하는 일에 아낌없이 활용해서 가장 보람 있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려주는 자기계발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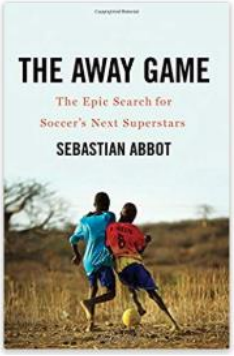
<목차>

서문 / 머리말
1장. 표류
2장. 자각
3장. 혼란
4장. 설계
5장. 지속
다음 순서는?

<저자 소개>

도미닉 콰르투치오(Dominick Quartuccio)는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 15년간 일한 후 사람들이 각자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멘토, 강사, 강연자, 저술가로 활동해 왔다.

제목 : THE AWAY GAME
가제 : 아프리카 꼬마는 어떻게 호날두가 되는가
저자 : Sebastian Abbot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8년 3월 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스포츠



* **"저자는 축구를 잘 알고 그 이야기를 썼지만, 이 책에는 인간이 처한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 베스트셀러 『The Beckham Experiment』의 저자 그랜트 왈**
* **"축구 팬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축구 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함께, 중동과 유럽에서 명예와 부를 얻으려 노력하는 아프리카 축구 선수들이 느끼는 절망과 고통을 보여준다. - 『Oil on Water』의 저자 헬론 하빌라**

사막에 세워진 왕국이라 불리는 나라,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됐다. 그 자랑스러운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대규모 축구 영재 발굴 사업 '풋볼 드림(Football Dreams)'이 시작됐다. 카타르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아스파이어 아카데미'의 후원을 받아 리오넬 메시를 발굴한 인물로 널리 알려진 조셉 콜로머가 총책임자로 지명된 이 사업의 목표는, FC 바르셀로나 팀에 입단할 차세대 축구 꿈나무를 선발하는 것이다. 최종 심사에 통과하여 수백만 유로의 계약금을 받고 유럽 무대에서 뛰게 될 선수는 단 24명. 조셉 콜로머를 중심으로 한 스카우트 팀은 숨은 보석을 찾기 위해 아프리카 7개국을 돌며 13세 어린이 40만 여명을 만난다.

AP 기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하버드 대학 입학 경쟁률보다 1000배는 더 혹독한 경쟁률을 뚫고 프로 선수가 될 기회를 붙들기 위해 피땀 흘린 소년들과 풋볼 드림 사업 전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들려준다. 흙먼지 풀풀 날리는 아프리카에서 가난에 쪼들리던 아이들이 차례차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로 활약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기까지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축구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어린 축구 광들의 뜨거운 열정과 운동 정신, 축구공을 제 몸처럼 다룰 줄 아는 기술, 경기 전략을 세우고 내다볼 줄 아는 감각,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는 투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했다. 그러나 탁월한 축구 실력 외에도 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춘 후보들도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아이들을 활용하려는 코치와 에이전트, 고집스럽고 예외란 없는 FIFA 규정과 같은 또 다른 장벽에 부딪쳐 성공의 문턱 앞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저자는 '바늘 구멍'이라는 표현이 딱 알맞다고 느껴질 정도로 치열한 경쟁 과정과 함께, 이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아스파이어 아카데미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과 문제점도 날카롭게 고발한다. 겉으로 내세운 목표는 유럽 프로 리그에서

선수로 활약할 어린 영재를 발굴한다는 것이었으나 선발 과정이 진행될수록 그 목표와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들이 드러내지 않은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아리송해지는 사례들이 수 차례 발생했다. 저자는 축구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순수한 재능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혹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훈련생으로 선발된 후 평생 보고, 듣고, 알고 지낸 것은 물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유한 아카데미 환경에서 겪은 혼란스러움을 생생하게 전한다. 타고난 침착함으로 리더로서의 자질을 인정 받은 세네갈 출신의 수비수 디아완두, 축구 실력은 흠 잡을 곳 없지만 변덕스러운 성격이 경기에 수시로 영향을 주는 가나 출신 미드필더 함자, 경기마다 무수한 득점을 올린 스트라이커 이브라히마, 덩치 큰 선수들 사이에서 유독 어린아이처럼 작은 체구에도 메시에 버금가는 플레이메이커 기질을 발휘하는 베르나르드까지, 여러 선수들의 실제 이야기도 접할 수 있다.

사막 한 가운데서 막대한 발전을 일궈낸 카타르의 지정학적인 배경과 더불어 꿈 하나만 좇아 온 힘을 다해 달린 재능 넘치는 아프리카 소년들과 돈에 굶주린 에이전트, 축구에 미친 유럽 팬들이 만들어낸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특별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부. 소년들
1. 회오리바람
2. 주장
3. 타깃
2부. 훈련생
4. 아스파이어 아카데미
5. 최종 심사
6. 퇴장
7. 형제애
8. 영광 그리고 수치
9. 밀크컵
3부. 프로 선수 (10-12장)
맺음말

<저자 소개>

세바스찬 애봇(Sebastian Abbot)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공정책 석사 과정을 마친 뒤 AP 카이로 지부와 이슬라마바드 지부에서 지부장으로 근무했다.

제목 : CHINA'S CHANGE
가제 : 알고 보면 닮고 싶은 진짜 중국 경제
저자 : Hugh Peyman
출판사: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발행일: 2018년 3월 12일
분량 : 404 페이지
장르 : 경제

* **"저자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여러 놀라운 사람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지금껏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오늘날 중국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 BBC 사장, 토니 홀(Tony Hall)**
* **"중국을 서구의 프리즘으로만 바라보느라 계속해서 틀린 결론이 도출되어 온 것과 달리, 저자는 중국을 흔치 않은 시선으로 이해한 사람이다." – 베스트셀러 『When China Rules the World』의 저자 마틴 자크**

아시아와 유럽 모두 정체된 성장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 40여 년간 아시아 여러 나라에 머물면서 경제와 산업을 연구해온 저자는 중국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중국이 1978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변화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에서는 미래 전망이 가장 밝았던 일본이 밟아 나간 길을 중국이 안전하게 뒤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서구 사회를 비롯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중국이 이룩한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현 시점에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의 답을 제시한다. 과연 다른 나라 정부나 기업, 개인이 중국의 방식을 채택한다면 꽉 막힌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미국과 유럽, 일본의 성장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세계 성장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무서운 성장 속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 2008년 이후 정체기를 면치 못하는 세계 경제를 일으키는 주축이 될까? 중국은 어마어마한 역사만큼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거치면서 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 끊임없는 변화를 강조해 왔다. 결국에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거나 중국의 고집스러운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양극단적인 생각이 오랫동안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리 잡았으나, 저자는 서양을 중심으로 확산된 이 같은 오해는 열성적인 소비자와 에너지 넘치는 민간 기업, 신 기술이 정부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이미 크게 뛰어 넘은 21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모두가 제자리에 머물 때 홀로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킨 중국의 비결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못된 그간의 인식부터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전통적인 철학을 밑거름으로 삼아 변화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여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적용해나가는 방식으로 자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자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국이 변화를 '관리'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기록적인 경제 성장의 결정적 요소가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철학과 역사, 경제, 비즈니스, 정치, 미래 전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소개한다. 멀리 내다보는 사고,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점진주의,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실용주의 등 현재의 중국을 만든 동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서구 사회가 200여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초창기에 이미 실천했던 요소와 일치한다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 '지상 최대의 쇼'라 칭할 만한 중국의 변화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적인 경제서다.

<목차>

머리말. 중국, 그리고 점점 더 무너지는 세계
1장. 변화, 중국의 원칙과 지상 최대의 쇼
2장. 역사, 철학, 전략, 통치
3장. 삶, 가족, 비즈니스, 정부에 관한 20가지 핵심 아이디어
4장. 변화의 중심축
5장. 변화 관리 - 중국의 비결
6장. 다른 나라와의 유대
7장. 원자바오의 'xun', 윈저우 극장
8장. 변화를 위한 당 내부의 갈등
9장. 왜 중국은 큰 오해를 받고 있을까
10장. 왜 중국 경제는 제대로 이해 받지 못할까
11장. 경제적 변화 - 차이는 밤과 낮
12장. 간과된 네 가지 강력한 주축
13장. 유령, 악몽, 중진국의 함정, 현실
14장. 아침 해를 찾아 혼란의 시대를 막으려면
부록

<저자 소개>

휴 페이맨(Hugh Peyman)은 옥스포드에서 정치, 철학, 경제학을 공부했다. 공저자로 『Richard Hall The Great Uhuru Railway: China's Showpiece in Africa』를 썼다. 1977년에 홍콩 로이터에서 근무하다 아시아 경제 매거진 「Far Eastern Economic Review」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35년 이상 아시아 경제 연구를 이어왔다.